

치조골 흡수가 심한 하악 무치악에서 최적의 수복 솔루션

장 윤 제 / 장윤제연합치과

무치악 환자가 내원한 경우 2~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유지형 Overdenture를 제작해 줄 수도 있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full mouth fixed bridge를 제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.

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는 환자의 요구와 경제적 여건, 치조골의 높이와 두께, 해부학적 구조물의 고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환자가 full mouth fixed bridge를 원한다고 하여도 치조골의 흡수가 아주 심하면 graft등의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Overdenture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젊은 환자 경우나 가철성 보철물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는 환자의 경우 비록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치조골이 충분치 않더라도 고정성 보철물을 추천하기도 할 것입니다.

하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심미적인 요소입니다. 임플란트가 기능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는 심미적인 요구 또한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발치한 지 오래되어 협착 치조골이 함몰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정성 보철물을 해주었을 때 입술 모양이 함몰되어 환자의 심미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block graft등을 시행하여 충분히 협설측 치조골 두께를 증가시키고 난 뒤에 고정성 보철물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. 만약 이 경우가 충족될 수 없다면 그 환자에게는 Overdenture를 시술해 주어야만 심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번 강의에서는 치조골 흡수가 아주 심한 하악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 수술 고통과 비용 절감, 심미적 만족감을 준 Overdenture 증례들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학력 및 경력

- *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, 치의학 박사
- * 뉴욕 대학교 치주-보철, 임플란트과 수련
- * 뉴욕 대학교 치과 재료학 석사
- * 뉴욕 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
- * ITI Fellow
- * NYU 임플란트 연구회 Director
- *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원장